

조 동 란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

이번 호의 해외 산업간호 정보에 본인이 미국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 전문가 훈련 및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온 내용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혹시 본인보다 먼저 이러한 과정을 수강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수강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인은 지난해 12월 초순 미국의 뉴저지의 University of Medical & Dentistry of New Jersey, School of Public Health, Office of Public Health Practice, Centers for Education & Training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 교육과정 (Training and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Hearing Conservation)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에 통과하였다. 이 과정을 수강한 이유는 내년도에 우리 교육원에도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과정 내용과 운영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미국의 청력관리 제도를 소개하면 미국은 소음 측정 결과 85dB이 넘으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작업장의 공학적인 소음 감소대책과 개인의 청력관리로 나뉘어 진다. 청력검사결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청력손실이 나타나면 OSHA의 기록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하는 사람 누구나가 청력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자격은 청력보존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70점 이상)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과정의 내용은 개인의 청력측정과 관리방법을 익히고 법규를 숙지하는 것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학적인 소음관리는 별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격자들은 사업장에 돌아가서 근로자들의 청력을 측정하고 관리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여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격은 5년 동안 유지되며 그 후에는 매 5년 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이 유지된다. 미국 내에서 이 자격증을 주는 조직은 유일하게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Hearing Conservation 협회이며,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동일한 지침 하에 교육과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00명가량의 자격자가 배출되었으며 그 중의 반 이상이 간호사라고 한다. 이번 교육에도 간호사가 대부분이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남자 직원이 한 사람 참석하였다.

교육내용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개요, 청력보존 전문가의 역할, 귀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 귀의 질환 및 증상, 청력장애의 원인과의 관리, 소리의 특성, 소음의 측정과 관리, 청력 검사, 청력측정 방법과 측정환경 및 측정 장비의 관리, 청력 측정 실습, 청력 검사 결과의 해석 및 사례 연구, 청력보호구의 종류별 특성과 소음 감소 효과, 종류별 청력보호구 선정과 착용 실습, 미국 연방법 및 주법의 소음 관련 규정, 기록 유지 및 관리, 청력보존 전문가 자격시험(필기, 실기-청력 측정 및 결과 해석 등), 시험결과 평가

및 시험내용 리뷰, 자격증 청구 원서 작성, 과정 정리, 평가 및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간은 2박 3일 23시간으로, 이론 및 실습 강의(20시간), 자격증 취득 시험(필기, 실기, 리뷰-3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일과는 8시부터 5시까지, 1강좌 90분에 휴식시간 15분씩으로 되어 있고, 오전 오후에 각각 두강좌를 진행하였는데 두 명의 강사가 전체를 담당하였다.

교육 중의 에피소드를 한 가지 소개하면, 강의시간 중 비상벨이 울렸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무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추운 날씨인데도 그 큰 학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였다. 조금 지나니 학교의 소방차와 중무장을 한 소방관이 도착하여 점검을 하였고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 거의 한 시간가량을 추위에 떨었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인상적이었고, 철저한 안전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교육 수강 후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청력보존프로그램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제고되기 전에는 강제성이 필요하므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 이상인 경우에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좀 더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 등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85dB 이상인 경우로 되어 있고 강제성이 없는 듯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므로 사업주들이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효과적인 청력관리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청력관리전문가 자격'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전문가를 지

속적으로 육성·배양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제도가 없으나, 과정을 수료한 경우 근로자들의 청력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므로 과정개설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교육 수강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2007년도에 본 교육원에서 시행 예정인 청력보조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산업 간호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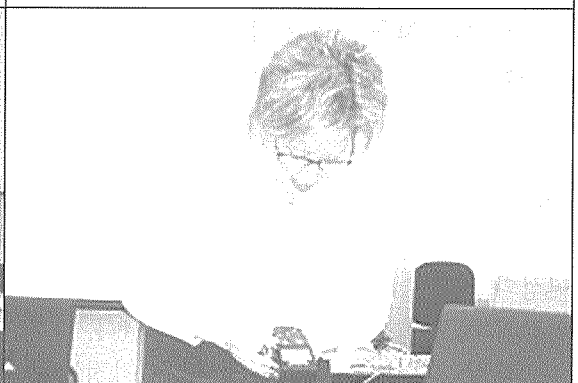
청력측정기



청력측정기 보정기 설명



강의장면



소음측정기 설명